

# “라후라야 발 씻은 물 마실 수 있느냐?”

(장애)

## ⑩ 밀행제일(密行第一) 라후라 존자

〈상〉아버지의 유산

부처님의 제자이기 이전에 부처님의 유일한 아들인 라후라 존자 이야기다. 아홉 살의 어린 나이에 출가하게 되는 그는 승가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부처님의 수승한 가르침을 받게 되고, 자신의 부족한 행동을 계율로 극복해가며 드러내지 않는 수행을 이어가는 그를 밀행제일이라 했다.

라후라는 부처님이 태자 시절 출가를 결심하고 기회를 찾고 있을 때 태어난다. 출가를 결심하고 있었던 부처님으로서의 아들의 출생이 괴로움이었다. '라후라', 그 이름은 부처님의 탄식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다. 그 뜻은 '장애'다. 출가 목전에서 아들의 탄생 소식을 들은 부처님은 "라후라(장애)!"라고 탄식했다. 그리고 이레 제 되던 날 궁을 나섰다.

### 아버지의 유산

9년 만이었다. 마가다국에서 전법을 펴고 계시던 부처님과 교단의 소문은 부처님의 고향 카필라국까지 전해진다. 태자가 부처가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 부처님의 아버지 정반왕은 사자를 보내 부처님을 고향으로 불렀고, 드디어 부처님은 고향 땅을 밟는다. 고향에 오신지 7일째 되던 날이었다. "라후라야, 잘 들어라. 아버지에게 가서 모든 재산을 물려달라고 하여라." 부처님의 부인 야소다라였다. "아버지! 부처님과 비구들의 행렬이 멈췄다. 잠시 멈췄던 부처님은 9년 전을 생각하며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라후라는 부처님의 뒤를 따르며 어머니 야소다라가 시킨 대로 말했다. 니그로다숲에 들어선 부처님은 사리불을 찾았다. "사리불이여, 이 아이가 아버지의 유산을 원하니 라후라를 사미로 받아 주거라." 목련 존자가 라후라의 머리를 쥐고 가사를 입혔다. 스승은 사리불 존자가 말했다. 라후라의 출가였다. 최초의 사미다. 부처님의 유산은 자신의 법을 전해주는 것이었다.

니그로다숲에 모인 비구들이 범왕의 계위를 이은 라후라를 축복했다. 아버지로부터 출생을 축복받지 못했던 아들 라후라. 아들이지 못했고 아버지이지 못했던 두 사람.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만났다.

라후라의 출가 소식을 알게 된 정반왕은 니그로다 숲으로 달려왔다. 머리를 쥐고 발우를 든 손자를 본 정반왕은 기가 막혔다. "태자인 네가 궁을 떠났을 때 내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너의 빈자리를 채우려던 난다미져 출가했고, 이제 제 어린 것마저 데려가려느냐?" 정반왕은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했다. "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아이의 출가는 받지 말아다오." 정반왕이 돌아간 뒤 부처님은 계율을 보냈다. <율장> 대품에서 전한다. "비구들이여, 지금부터 부모의 동의가 없는 아이의 출가를 금하겠다." 부처님은 이튿날 라후라와 함께 고향을 다시 떠난다.



그림 · 김홍인

### 부처님의 아들 최초의 사미로 출가

### 부처님 설법으로 대중생활 극복

### 인간존재의 근본인 오온과

###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깨우쳐

### 아홉 살 라후라

부처님의 아들, 라후라. 그에게 특별한 배려 같은 것은 없었다. 똑같은 부처님의 계율 속에서 생활해야 했다. 하지만 라후라는 아홉 살이었다. 라후라가 감당하기엔 쉽지 않은 변화였다. 아울러 아직 어린 라후라의 행동은 수행하고 있는 대중들에게 방해가 되기 일쑤였다. 수행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라후라는 대중을 놀리거나 장난삼아 한 거짓말로 주위를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궁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라후라의 행동들이 대중 생활에서는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라후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쑥꾸러기가 되어 있었고, 대중의 불만은 점점 커져만 갔다. 사리불과 목련 존자가 각각 화상과 아사리를 맞고 있었으나 쉽지 않았다. <유마의기> 권2에서 전한다. "라후라는 출가 후 웃음이 많고, 입이 거칠었으며, 다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자주 그를 희롱하였는데 부처님께서 어느 날, 계율로서 훈계하여 계율을 지킬 것을 약속 받았다. 이에 라후라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성내는 것을 영원히 단절하니 부처님께서 라후라의 인욕과 지계를 찬탄하여 밀행제일이라 했다." 어느 날, 격정하시던 부처님이 결국 라후라를 찾아가다.

### 아버지의 첫 가르침

라후라는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자리를 깨끗이 정돈하고 발 씻은 물을 준비했다. 부처님은 라후라가 준비한 물로 발을 씻은 뒤 대야의 물을 조금 남기고 라후라에게 물으셨다. (맛지마니까야) '야발 랏띠까에서 라후라를 교계한 경'에서 전한다.

"라후라야, 너는 이 대야에 물이 조금 남아 있는 것을 보느냐?" / "그렇습니다." / "라후라야, 고의로 거짓말 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의 출가수행이란 것도 이와 같이 조금 남은 대야의 물처럼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부처님은 그 조금 남은 물을 가리키며 라후라에게 물으셨다. "이 발 씻은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라후라가 놀라며 말했다. "발 씻은 물은 더러워서 마실 수 없습니다." / "그대도 이 물과 같다." 라후라의 눈이 커졌다. "사문이 되었는데도 수행을 게을리하고,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하며 삼독의 더러움이 몸속에 가득 차 있다면 이 더러워진 물처럼 쓸 데가 없는 것이다."

다시 부처님은 그 조금 남아 있는 물을 쏟아버리고 라후라에게 다시 물으셨다. "라후라야, 너는 그 조금 남은 물이 버려진 것을 보았느냐?" / "그렇습니다." / "라후라야, 고의로 거짓말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의 출가수행이란 것도 이와 같이 버려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엔 대야를 밖으로 내던지며 말씀하셨다. "라후라야, 너는 지금 저 대야가 깨질까봐 걱정이라도 했더냐?" / "아닙니다. 어차피 값싸고 하찮은 물건입니다." / "그렇다. 그대는 사문이 되어 몸과 입

을 함부로 하여 대중을 힘들게 했으니 끝내는 어느 누구도 그대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농담으로라도 결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후라가 고개를 숙였다. 부처님의 설법이 이어졌다. "라후라야,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들어 안 것을 내일도 또 다음 날도 잊지 않는 것이다. 라후라야, 거울의 용도를 아느냐?" /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 "그렇다. 거울을 보듯이 쉬지 않고 자신을 반조하면서 행동을 해야 하고, 말을 해야 하며, 생각을 해야 한다. 라후라야, 행동이 청정했고, 말이 청정했고, 생각이 청정했던 과거세의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은 모두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조함에 의해 행동과 말과 생각이 청정했다. 그러므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설하셨고 라후라는 수행자의 삶을 알아가기 시작한다.

### 라후라 존자는

부처님의 제자이기 이전에 부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 또한 십대제자 중 유일하게 사미로 출가해 사미의 호시가 된다. 라후라, 갈라호라, 하라고라 등으로 음사한다. 라후라는 부처님이 짧은 고향 방문을 마치고 다시 고향을 떠날 때 사리불 존자를 화상으로, 목련 존자를 아사리로 출가한다. 어린 나이인데도 본인의 발심으로 이루어진 출가가 아니었기에 출가 초기 그의 대중생활과 수행생활은 여법하지 못했으며 대중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고자 보이지 않는 수행을 함으로써 밀행제일로 불리게 된다.

(그림은 조항숙씨의 서곡암 라후라 판화)

박재완 기자 wanhollo@hyunbul.com



佛陀釋迦世尊에서 傳法하신 修行法  
西域에서 28代 海東에서 5代 33대 祖師가 설하신 修行正路

**正法眼藏 三處傳心 하신  
釋迦世尊의 修行法이 여기에 담겨 있다!**

해동의 6祖 慧能大師의 入滅(BC 713년)以後  
般若에 들춰버린 正法이 1,300餘年만에 햇빛을 보게된

**佛陀의 修行路 “禪林의 바른길”이  
여기에 고구정녕 說해져 있다.**

판매처: 불서총판 운주사 ☎(02) 3672-7181~5 / 부산 영광도서 ☎(051) 816-9500



■ 편저자 : 각암 성원  
■ 상권 401쪽 / 하권 380쪽  
■ 가격 : 상권 15,000원 / 하권 15,000원  
■ 발행처 : 동진기획 · 붓다쇼핑  
부산시 기장군 철마삼동로 54  
☎(051)515-8888 (대)  
출판등록 제11-67호

|  |   |   |
|--|---|---|
| <p><b>한지인출대길(大/2도)</b><br/>판매가 12,000원 大 (10×43cm)<br/>10,000원 2도 (7×30cm)<br/>• 포 장 : 100매 비닐포장</p> | <p><b>경면삼매삼재부</b><br/>판매가 6,000원<br/>• 포 장 : 100매 비닐포장<br/>• 크 기 : 9×20cm<br/>• 포 장 : 100매 비닐포장</p> | <p><b>경면삼재부</b><br/>판매가 6,000원(100매)<br/>• 크 기 : 9×20cm<br/>• 포 장 : 100매 비닐포장</p> |
| <p><b>삼매 삼재풀이</b><br/>판매가 800원(200개 이상)<br/>판매가 1,000원<br/>• 포 장 : 봉투 삽입</p>                         | <p><b>경면한지 불설삼재풀이</b><br/>판매가 1,000원(200개 이상)<br/>판매가 1,200원<br/>• 포 장 : 봉투 삽입</p>                  | <p><b>한지 삼재풀이</b><br/>판매가 700원(200개 이상)<br/>판매가 900원<br/>• 포 장 : 봉투 삽입</p>        |
| <p><b>금강경탑다라니</b><br/>판매가 180원(600개 이상)<br/>판매가 250원<br/>• 포 장 : 봉투 삽입</p>                           | <p><b>[인견한지]금강경탑다라니</b><br/>판매가 400원(450개 이상)<br/>판매가 600원<br/>• 포 장 : 봉투 삽입</p>                    | <p><b>신년맞이기도부</b><br/>판매가 800원(200개이상)<br/>판매가 1000원<br/>• 포 장 : 봉투 삽입</p>        |